

삼학도 석탄부두 방진막 34년만에 철거

이번주 철거업체 선정 목포시 이달말까지 마무리 삼학도 복원사업 가속도

온전한 삼학도 복원의 걸림돌이었던 석탄부두 방진막이 34년 만에 마침내 철거된다.

이에 따라 온전한 삼학도 복원의 양대 걸림돌이었던 한국제분 사일로와 석탄부두 방진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온전한 삼학도 복원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6일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석탄부두 기능 폐쇄에 이어 이달 중순부터 석탄부두 방진막 철거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높이 37m의 한국제분 콘크리트 사일로 20기가 지난 2012년 8월 철거된 지 7년만에 거둔 성과다.

이와 관련 목포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석탄부두 방진막은 목포청 관할 뿐만 아니라 CJ 대한통운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철거가 다소 늦어졌지만 이번 주 중으로 철거업체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는 모두 철거될 것"이라며 "오는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전국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탄부두 방진막은 석탄 하역작업 중 석

탄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5년 설치됐다.

하지만 석탄부두 인근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들어서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유커는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이 증가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공교롭게도 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자리는 목포해수청이 현재의 옥암동 정사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청사가 있던 자리였다. 당시 해수청은 건물의 모든 창을 테이프로 밀봉하고 밖의 분진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만 봐도 분진이 골칫거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방진막 철거로 온전한 삼학도 복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열 삼학도보존회 회장은 "삼학도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 10명 중 9명이 '삼학도에 와서 삼학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삼학도 복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섬의 이미지 부재'라며 "삼학도의 섬 이미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 양효식 박사는 "조형화되고 모형화 된 섬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전제한 뒤 "김대중 노벨 평화상기념관, 어린이 바다과학관, 요트 마리나 등 산재된 시설물의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일본 노고노시마나 프랑스 리옹처럼 사시사철 꽃피는 섬을 만



온전한 삼학도 복원의 걸림돌이었던 석탄부두 방진막이 지난 1985년 설치된 이후 34년 만에 마침내 철거된다.

들어 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학도의 미래 비전으로 '뉴트로(New+Retro)'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김도형 물사랑 배움터 센터장은 "삼학도, 삼학도 하지만 삼학도에 학이 없다"며 "학이 비록 철새라고 하지만 일본 북해도가 가능하다"면서 삼학도에서 학을 볼 수 있

도록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삼학도 복원과 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시작돼 지금까지 총 사업비 1399억(국비 487억, 지방비 912억)이 투입돼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향후 추가로 투입돼야 할 예산은 대략 284억원이며 가운데 보상비가 118억원, 공사비는 165억원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거리 확 달라진다

페타이어 등 노상 적치물 없애고 디자인 주차 보드 등 설치 화신연쇄점 등 경관도 정비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대 거리경관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 도시발전 사업단은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주정차 금지 적치물 대신 디자인 주차 보드를 설치하고 전신주를 활용한 홍보 배너 설치, 근대건축자산 전시용 옛 간판 설치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주정차를 막기 위해 상가나 주택 주변에 내다놓은 페타이어·화분·물통 등 불필요한 노상적치물을 없애고 대신 주민과 지역작가가 협력해 고기상자(어상자)를 활용한 디자인 주차 보드를 상점 앞에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통일성을 꾀하면서 항구도시의 운치를 살린 이 주차 보드는 앞면에는 상점 문양이, 후면에는 홍보문구가 들어간다. 현재 '1897 현장지원센터' 등 10개소에 설치됐다.

앞으로 목포시 도시재생과는 반응 추이를 지켜본 뒤 희망하는 상점의 신청을 받아 추가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화신연쇄점



디자인 주차보드

~유달초등학교 구간 66개 전신주에 불법 홍보물이나 광고물이 덕지덕지 나붙어 미관을 해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홍보배너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나무 숲 거리 일대 10개소의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한 옛날 간판을 설치해 60~70년대 추억을 되살리고 화신연쇄점, 붉은 벽돌창고, 일본인 교회 등 경관도 정비된다.

이와 관련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최근 들어 방문객이 2배 이상 급증한 근대역사관 1관과 2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거리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손해원 거리로 알려진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거리경관이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해수청, 천사대교 인근에 등명기 설치

비급·도초 항로 안전항행 강화 흑산항로 새 등대 설치도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장규표)은 신안 천사대교 밑을 통항하는 여객선의 안전항행을 위해 천사대교 인근에 위치한 복진입구에 등명기(등화·사진)를 새로 설치했다.

이번 등명기를 설치한 등대는 최근 송공-암태 간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 야간에 목포-비급·도초로 통항하는 여객선의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흑산 항로의 안전항행을 위해 목포-흑산 여객선 항로 상 위치한 중태도·심리항에 새로운 등대를 설치하고자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등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등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은 지난 3월에 시작해서 오는 7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행 안



전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통항선박 지원 및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9월까지 조성

목포 청년들의 꿈 실현과 창업의 요람이 될 '청년·일자리 통합센터'가 조성된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내일을, 목포에 활력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부터 9월까지 기업은행 유달 출장소 2층에 청년·일자리 통합센터가 들어선다. <사진>

통합센터에는 취·창업 정보 플랫폼, 취·창업 공간, 협업 공간,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 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통합센터의 핵심 목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생활 안정, 청년행복 복지, 청년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박태운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목포시만의 청년과 일자리를 위한 민·관·산·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센터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가 신



설되면 단일 창구를 통해 쉽고 간편한 취·창업 정보가 제공됨은 물론 협업·소통 공간까지 제공돼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취업을 상상이 가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시 등 9개소를 벤치마킹하고 청년위원들과 3차례 협의를 거쳐 장소를 결정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올해 가장 친절하 부서는?

13~21일 전화 친절도 평가 지난해엔 기업유치실 1위

목포시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목포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화 친절도 평가에 나선다.

목포시 감사실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 부서 현원의 35% 수준인 4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조사한다.

이번 친절도 조사는 대민업무 담당 자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전화 응대태도, 업무 인식, 신속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감사실이 공개한 지난해 친절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유치실이 청내서 가장 친절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옥암동과 도시계획과가 우수, 정보통신과, 북항동, 문화예술과는 장려상을 받았다.

하위 9개 부서는 연동, 이도동, 부흥

동, 삼학동, 원산동, 연산동, 부주동, 목원동, 자연사박물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낮은 평점을 받은 부서 대다수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창구인 동 행정복지센터여서 고객 만족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경어 사용', '대화 기법', '인사성 체감도', '밝고 활기찬 음성' 등이 꼽혔다.

또 가장 강점을 보인 항목은 '응대 태도'로 전 부서가 90점 이상을 받았으며, 친절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철준 목포시 감사실장은 "수신인사, 응대과정의 적극성, 끝 인사 추가 멘트가 고객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통화 마무리에 '수고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멘트가 생활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